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좋아요 어법

나 태 주
시인·한국시인협회 회장

최근 몇 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아니,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이기도 했다. 거의 날마다 전국의 중학교나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문학 강연을 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 특히 10대나 20대 젊은이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새롭게 느끼고 배운 것이 있다. 그들의 어법이 매우 분명하고 깔끔하다는 것이다. 주저함이 없고 굴절하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라는 말은 아니다. 말하자면 자신감 같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반갑고 좋은 현상이며 하나의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만큼 그들의 내면세계가 깨끗하고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좋다'는 말만 해도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직접 대고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약간은 미온적이고 보류하는 쪽의 표현이라 할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도로 에둘러 얼버무렸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곧바로 '좋아요'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것도 번번이 그렇게 말하고, 주저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법이야."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의 세상이 밝아진 것이다. 이러한 어법 하나에도 우리의 소망이 들어 있고 내일에 대한 가능성이 숨 쉬고 있음을 본다.

나의 시 가운데 이런 짧은 시 하나가 있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좋다'란 이름의 작품이다. 언뜻 보면 뭐 이런 글이 무슨 시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시를 한번 들여다보자. 시의 제목까지 합쳐서 총 15개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좋다'는 뜻의 단어가 역시 제목까지 합쳐서 네 번이나 나온다. '좋다'란 말이 아닌 말은 '하니까'와 '나도' 두 개의 단어뿐이다. 시 전체가 '좋다'란 단어가 변형되어 반복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독자들은 이 시에 나름대로 감동이 있다고 반응한다. 지금 우리는 서로서로 좋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렇다. 아니다, 싫다가 아니고 그렇다, 좋다이다. 그래야 한다. 긍정이고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처음 내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우리 집 손자 아이 때문이다. 세 살쯤 되었을까. 마침 아이가 말을 배울 때였는데 우리 집에 오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영화를 자주 보았다. 아이가 좋아하며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붉은색 커다란 부리를 가진 앵무새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다. 그 앵무새는 툴툴거리기를 잘하고 화를 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영화를 자주 보아서 그랬을까. 아이에게 말을 걸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싫어요'였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부르는 데도 '싫어요'라고 말하는 저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바탕에 두고 쓴 시가 바로 '좋다'란 시이다. 그렇다면 이 시를 한번 '싫다'는 말을 넣어서 바꾸어 읽어 보자. "싫어요/ 싫다고 하니 나도 싫다." 대번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 모습까지 뒤집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 한 마디가 중요하고 무섭다.

이제 우리는 부디 좋다는 말을 자주,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겠다. 나아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겠다. 좋다는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자주, 많이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나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정말로 그건 그렇다. 상황이나 삶이 긍정적이고 좋아서 좋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다는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들어서, 상황이나 삶이 좋은 것이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세상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

그것이 진정 그러할 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좋아요 어법'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디 우리 '좋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종교칼럼

박완서 선생을 추억하는 나는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죄와 벌', '적과 흑', '닥터 지바고', '전쟁과 평화' 같은 세계문학전집 속의 책들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다. 당시엔 집집마다 그런 장식용 전집류가 한두 질 정도 있었다. 방학 때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그런 책들을 읽었다

대학 시절, 운동권 써클 활동을 하면서 오직 사회과학 서적만 읽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회과학 서적만 찾아 읽었다. 소부르조아적인 소설 나부랭이 따위를 읽는 것은 혁명과 민중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모두 그걸 당연시했다.

대학을 떠나 20대 내내 공장들이 몰려 있던 영등포 일대의 자취방을 전전했다. 혼자서 살 여력이 되지 않아 둘 혹은 셋이 함께 살았다. 오갈 곳이 없으면 아는 사람 방에 빌붙어 살기도 했다. 80년대 고척동, 신정동 같은 영등포 주변 자취방은 다 고만고만했다. 시멘트의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 지저분하고 작고 어둡고 칙칙했다.

그런 자취방이었다. 박완서 선생의 소설책 한 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였다.

책을 집어 든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끝까지 다 봤다. 사회과학 서적과는 완전히 다른 독서의 매력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30대를 시작하며 영등포를 떠났다.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반지하의 자취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사회과학 서적이 아닌 책을 산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노년의 선생이 담담하게 풀어내는 글들은 많은 위로가 되었다.

2012년인가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선생의 평전이 나왔다. 책 속에 제법 큰 브로마이드판으로 선생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사진을 내 방에 붙였다. 누군가의 사진을 내 방에 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약간 처진 눈으로 덤덤하게 웃고 있는 노년의 선생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면 선생이 평생동안 가슴 속에 품었던 아픔 같은 것이 전해지는 듯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시원찮아졌다는 핑계로 오디오북이라는 신문물을 접하기 시작했다. 오디오북을 뒤적이다 선생의 '그 많던 싱아는 다 어디로 갔을까'를 듣게 되었다.

일제시대 개성 근교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선생과 달리, 나는 60년대 초반 부산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누가 뭐래도 뼛속 깊이 도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둔 이부자리에 누워 유년시절을 추억하는 선생의 글을 차분한 여자 성우의 목소리로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노년의 선생이 추억하는 유년시절이 애잔하게 내 안으로 스며든다. 이렇게라도 해야 가슴을 누르는 이 먹먹함이 사라질 것 같다.

스님들은 스님다운 스님, 참 중을 최고로 친다. 보조국사 종재일 같은 큰 행사날, 오랜만에 만나는 스님들은 여러 스님들의 안부와 일화를 차담거리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이야기는 그 스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먼 훗날 보조국사 종재일에 모인 스님들이 혹시라도 나를 떠올리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나는 글 나부랭이나 쓰던 중으로 회자될 것이다. 스님들이 가볍게 입에 올려서 깎아내리기에 이만큼 좋은 소재도 없다. 하지만 후대까지 기억될 만큼의 이름값이 없는 나는 스님들의 차담거리가 될 일도 없을 터이니 나의 걱정은 괜한 기우일 뿐이다.

하긴 가슴 한구석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부처님이나 큰스님이 아니라 소설가인 것만 봐도 내가 제대로 된 중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설령 후일 스님들이 나를 차담거리 정도로나 기억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덕분에 나이 먹어서까지 제대로 된 중 노릇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니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선생이 나를 당신의 소설에 등장시켰다면,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온다.

역시 글쓰기만큼 좋은 치료제도 없다.

기 고

'알면 약, 모르면 독'

기성환
조선대 약학대학 교수

16세기 스위스 출신의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라셀수스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독이며, 독(毒)과 약(藥)의 차이는 용량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이는 약과 독은 완벽하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편의상의 구별일 뿐 용량, 용법,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몸에 아무리 유익한 약이라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독이 될 수 있음을 16세기 고대 학자가 증명한 것이다. 실제 약학을 의미하는 '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기원하였는데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본인의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파르마콘을 '약'이며 동시에 '독'이고, '축복'이며 동시에 '저주'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모순 같고 대립처럼 보이는 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약 역시 어원에서부터 약과 독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하여 나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도록 잘 사용해야 한다.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포함하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해열 진통제로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 허용량은 1일 4g 이내로 용법 및 용량을 지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할 경우 되돌릴 수 없이 심각한 급성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오남용으로 1년에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5년간 600여 건의 타이레놀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이는 안전 상비 의약품 부작용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음주를 한 직후 또는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에서는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대사 작용이 일어나는데 공교롭게도 술과 아세트아미노펜 대사에 관여하는 생체 효소가 동일하여 두 물질이 공존하는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취로 인한 두통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매한가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른 진통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임신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한 약물로 분류 되어 있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유사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소아 천식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와 전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 이외에도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 및 다른 소염 진통제, 종합 감기약 등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중복으로 과량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의약품 안전서비스(DUR)를 시행하여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나 특정 의약품이 동일 환자에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 처방 및 조제 과정 중에 의사나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DUR 의약품 목록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금기 의약품 성분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실시된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약국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DUR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의약품 사용 빈도가 높고 양한방 의료 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른 국가보다 크다. 따라서 타이레놀과 같이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방 의약품 역시 DUR 적용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社 說

광주형 일자리 성공, 합의 이행에 달렸다

좌초 위기에 몰렸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달 2일 신뢰 붕괴를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27일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는 그제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가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함께 GGM 내에 상생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결렬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합의는 서로 한 발짝씩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노동계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노총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GGM 내에 상생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동안 주장해 온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GGM 임원 적정 임금 설정 등 5개 요구사항은 철회했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이라는 카드로 노동계의 복귀를 이끌어 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이른바 노동서비스 플랫폼인데, 이로써 노동계가 주축이 돼 광주형 일자리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던 이유다. GGM도 치열한 토론 끝에 상생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는 대국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3자가 난항 끝에 사업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이제는 서로가 합의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합의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진행 과정에서 문구 해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제 정상 궤도에 막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갈등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한 발짝씩 양보하는 정신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란 것을 이번에 배웠다.

황금연휴 코로나19 경계심 늦추지 말아야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자칫 국민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경우 방역망이 뚫려 집단·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와 정부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는 등 초창기 코로나19 확산 때와 같은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여행을 삼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최소 단위로 해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를 피해 달라고 재삼 권고한다. 손 자주 씻기, 기침 예절, 2m 거리 유지, 다중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규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는 이 기간 여행·행사·모임 등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데다 사람 간 접촉 빈도가 높아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간 자가 격리 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도 크게 느는 등 심리적 방역 태세가 흐트러지고 있는 최근 추세도 위험 신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번 연휴가 분기점이 될 것"이고 말한다. 국민의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방심이 폭발적인 감염 재확산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 방역 지침을 어기게 되면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구축한 우리나라의 방역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침묵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그는 '논리-철학논고'라는 100쪽도 안 되는 한 권의 책으로 31세 나이에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게 철학은 '언어를 통한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다. 언어와 세계는 일대일 대응 관계에 놓여 있고,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럽의 철강왕'으로 불릴 정도로 재력가인 부친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형제들과 예술가들에 다 나눠 주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극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

우리 주변에도 비트겐슈타인처럼 나눔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굴 없는 기부자들과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이 그들이다.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나눔과 연대'는 계속된다. 전남 곳곳에서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취약 계층 아이들을 돕는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철학에서 모든 형이상학의 문제들은 언어가 왜곡돼서 만들어진 가짜 문제이자 헛소리라고 비판한 비트겐슈타인이 만약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쏟아지는 거친 말들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까. 가짜뉴스가 사실을 왜곡하고, 막말이 정치를 오염시키며, 인터넷엔 심각한 언어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본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은 김종인과 김정은이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말은 삶의 과정과 품격을 말해주는데 막말이 난무한다. 거침없이 내뱉는 막말은 언어 자체를 부끄럽게 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자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너무 아전인수식이어서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논고'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